

# 심의린 『조선동화대집』의 특징과 문학사적 위상

김미영\*

|| 차례 ||

- I. 머리말
- II. 심의린의 동화 인식
- III. 『조선동화대집』의 특징
  - 1. 형식적 특징
  - 2. 내용적 특징
- IV. 『조선동화대집』의 문학사적 위상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동화대집』의 형식과 내용적 특징을 고찰하여, 문학사적 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연구 목적 아래 수행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을 통해 우리말 어휘의 확충에 힘쓰면서, 재미나 흥미를 유발하여 아동의 상상력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저의 의도가 명확했던 것으로 보아, 그는 ‘동화’라는 갈래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조선동화대집』에 실린 동화들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기점 상황(initial situation)에서 시작되어 그것이 제거되는 충족의 종점 상황(final situation)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일제 강점기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서는 일제 강점기 상황의 극복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셋째, 심의린은 번안동화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상(人間像)과 평등사상을 고취하려고 하였다.

넷째, 『조선동화대집』에는 바보이야기를 다룬 소화가 많았다. 심의린은 맥락효과를

---

\* 영남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

통해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선인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조선동화대집』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에서 왜곡한 조선 설화의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함께 민족적 기질을 드러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조선동화대집』은 『조선동화집』에서 보여준 왜곡된 조선인의 정서를 수정하였고, 이것은 민족적 기질을 지니고 있던 심의린의 편저자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조선동화대집』이 전인·계몽의 아동 독서물로서의 문학사적 위상이 있음을 밝혔다.

주제어 : 심의린(沈宜麟), 『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 『조선동화집』(朝鮮童話集), 아동독서물(兒童讀書物), 동화(童話)

## I. 머리말

1920년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세 개의 동화집이 거의 같은 시기에 출판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 1924년에 출판한 『조선동화집』을 비롯하여, 1925년에 나온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의 『조선동화집』과 1926년에 나온 심의린(沈宜麟)의 『조선동화대집』이 그것이다.<sup>1)</sup> 이들 동화집은 제각기 그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자의 두 동화집은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어로 출판되었는데 반해,<sup>2)</sup> 후자는 한국인에 의해 한국어로 출판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sup>3)</sup>

1) 1924년에 간행된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의 『일본동화집』 속에 조선의 동화가 27편 수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일본과 조선, 아이누의 동화들을 모아서 출판한 것이다.

松村武雄, 『日本童話集』 東京, 世界童話大系刊行會, 1924.

2) 조선총독부에서는 당시 ‘경성(京城)’이라고 부르던 서울에서 출판하였고, 나카무라 료헤이는 도쿄(東京)에서 출판하였다.

3) 본고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경우는 ‘조선’이라고 지칭하였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지칭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이러한 특징만으로도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은 학계에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이 책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이 그 당시 전승되고 있던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여, ‘동화(童話)’란 이름을 붙여 최초로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린의 이 책은 구하기가 힘들어 널리 이용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신원기가 원문과 해제(解題), 역주(譯註)를 붙여 재출판함으로써 학계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김경희<sup>4)</sup>와 권혁래,<sup>5)</sup> 신원기,<sup>6)</sup> 조상우<sup>7)</sup>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이 책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려고 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심의린의 생애와 『조선동화대집』 전체 텍스트의 소개 및 유형을 분류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책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여 쓰인 최초의 동화집이었으므로, 심의린이 동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의도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왜 그가 동화라는 갈래의 문학을 이용하여 한편의 편저서로 『조선동화대집』을 출판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는 이 책의 문학사적 의의를 조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4) 김경희,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

5) 권혁래,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학사연구』 39집, 민족문학사학회, 2009

6) 신원기, 『『조선동화대집』의 내용과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8

7) 조상우,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우의의 유형과 그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39집, 2010.

심의린은 1917년 한성고등보통학교 사범부를 졸업하고 교동보통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한 다음, 계속해서 교단에 몸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연구회에도 가입하여 한글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그의 동화집 출판은 어떤 형태로든 시대 의식을 반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24년에는 오다 쇼고(小田省吾)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리들에 의해 『조선동화집』이 출판되었다. 이 동화집에는 당시에 조사된 이야기들을 개작·번역한 25편의 전래동화가 수록되어 있다. 두루 알다시피 조선총독부에서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난 뒤에, 그들의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속 조사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로 출판된 것이 이 『조선동화집』이었다.<sup>8)</sup> 따라서 그들이 조선의 동화에 이처럼 일찍부터 주목을 한 것은 조선인들의 의식 구조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식민지 통치당국에 의해 『조선동화집』이 출판되고 난 다음, 2년이 미처 되지 않는 사이에 『조선동화대집』이 나왔다는 것은 심의린이 민족적 성향을 지녔음을 감안할 때 『조선동화대집』은 전자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후자에는 전자에 수록된 25편의 이야기 외에, 『바보 모집』에 10편, 『호랑이 모집』에 9편 등 독립된 작품이 각각 부속되어 있어, 이를 합산하면 총 83편이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심의린이 동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어떤 의도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으며, 조선총독부편 『조선동화집』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을 구명함으로써, 이 책이 가지는

8)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민속자료 제1집으로 출판한 것이 『조선의 수수께끼』였고, 제2집으로 이 『조선 동화집』을 출판했다.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謎』京城, 大阪屋號書店, 1924.

문학사적인 위상을 해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II. 심의린의 동화 인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20년대 『조선동화대집』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2권의 동화집이 출판되었다. 즉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1924. 9)과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의 『조선동화집』(1926. 2)이 그것이다. 이 책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어로 출판된 동화집이었다.

일본인들이 이 무렵에 조선의 동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민속 조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1924년 9월에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일본인들이 조선의 동화에 주목을 했다는 것은 이것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을 가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마쓰무라 다케오(松村武雄)가 『세계동화대계』를 출판하면서, 간행한 『일본동화집』에는 일본의 이야기 174편과 조선의 동화 27편, 아이누 동화 73편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조선 동화 해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였다.

「자료 1」

「(1) 인문지리학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처럼, 반도(半島)의 문화사상에 있어서 역할은 ‘문화의 중개자’로서의 것이었다. 반도는 하나의 중개자로서, 어떤 대륙으로부터 다른 대륙 혹은 섬나라에 문화를 이식시키는 교량이다. 우리 조선도 반도의 하나로, 매우 선명하게 그 역할을 달고 있다. 인도 및 중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은, 아니 때로는 서구의 문화까지도 이 ‘계림(鷄林)’을 통해서, 홍수와 같이 ‘해가 뜨는 나라(日本)’로 흘러 들어왔다. 인류

문화의 산물의 하나였던 동화 — 강건한 유리성(遊離性)과 광포성(廣布性)이 풍부한 동화도, 조선을 하나의 커다란 다리로서, 계속해서 일본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조선의 동화를 살펴볼 때, 그것들은 많은 것이 한편으로는 인도, 중국에 유사함을 보이고, 다른 한편에 있어 일본에 유사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또 때로는 구주(歐洲)의 설화에까지도 약간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 중략 ……

(2) 한편에 있어서 조선은 또 자기나라의 동화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화계(童話界)를 다채롭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실린 <홍내 소란>, <팔 이야기>와 민간에 유포된 <외눈과 돌아간 코>, <제비 다리>의 조선 동화가, 제각기 일본의 <굴러가는 고구마>, <스님 착각>, <스미토모 메이신과 백낙천>, <일부러 다친 참새>의 원형인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일본의 동화계에 흥미가 있는 두 개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 <바보 사위>형의 이야기와 <스님 풀리기>형의 이야기도, 그 근원은 조선에 있는 것 같다. …… 중략 ……

(3) 마지막으로 조선은 또 당연한 사실로서,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져 자기 나라에서만 전해지고 있는 많은 동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이야기에, 문화상에서 또는 지리적 환경상에서, 분명하게 ‘조선적’인 특이한 풍모가 새겨져 있다. <중국어 좋아하는 사내>가 중국어의 반항적 기분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 <커다란 버치>가 양반에의 조롱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것, 혹은 <호랑이와 나팔>이 자기 나라에 있어서 주요한 동물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점에 있어서, 동화 구성의 인자로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눈을 뜬 장님>과 같은 것도,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조선 사람의 성정(性情)이라고 보아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9)</sup>

이상과 같은 마쓰무라의 해설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동화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이들 동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그는 단락 (1)에서 한국이 지리적으로 반

9) 松村武雄, 앞의 책, 7-10쪽.

도리는 점을 부각시켜 교량적 역할론을 강조함으로써 그 문화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마쓰무라의 인식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강점을 합리화하려 하였던 어용학자들의 ‘식민지 사관’<sup>10)</sup>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단락 (2)에서는 조선 동화와 일본 동화와의 관련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궁극적 목표였던 ‘내선 일체(內鮮一體)’ 곧 조선을 완전하게 일본화하려는 저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서도 단락 (3)에서는 조선적인 특색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일본과의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의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 이미 일본의 일부로 강점하고 있는 곳의 동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여, 그만큼 조선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마쓰무라 다케오는 조선 동화를 철저하게 그들의 식민지 지배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 후에 나온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자료 2』

“나는 조선에 건너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것, 기분이 좋은 것, 조선적인 것을 골라내어 내 나름대로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으로부터 새로운 동포와 정말로 친숙하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들 중에는, 아주 내지(內地)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랑 대단히 닮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어디에선가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같이

10) 旗田巍, 『朝鮮史入門』 東京, 太平出版社, 1970, 24쪽.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서양의 것은 비교적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동포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조선의 이야기의 문을 열어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상재(上梓)했습니다. 우선 내지 쪽의 여러분 앞에,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들에게, 다음으로 조선의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의 조선쪽의 조상들이 남기고 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칩니다.”<sup>11)</sup>

이것을 보면 나카무라의 조선 동화에 대한 인식 역시 앞에서 살펴본 마쓰무라 다케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언하면 나카무라도 마쓰무라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자기네 땅이 된 조선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조선 동화를 일본에 알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과 일본의 정서가 비슷하다.’나 ‘우리들의 조선쪽의 조상들이 남기고 간’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내선일체의 식민지 사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아래서, 조선인으로서 조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제의 횡포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당시에 조선에서는 동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1922년에는 『개벽(開闢)』 26호에 「조선고래동화모집」이라는 현상 광고가 게재된 바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3」

(1) 어느民族에던지 그民族性과 民族生活를 根柢로하고 거기서 울려나온 傳說과 民謠와 童話와 童謠가 있는 것이니 英米의 民에게는 그네의 傳說과 童話가 따로 있고 獨이나 佛民에게는 또 그네의 짜로운 傳說과 童話를가지

11) 中村亮平, 『朝鮮童話集』東京, 富山房, 1925, 1-2쪽.



고 있는 것이라 이 傳說, 童話, 童謠는 그 民族性과 民族의 生活를 根據하고 거기서 흘러나와서 다시 그것이 그 民族根性을 固健히 하고 새물을 주는 것이니

(2) 구리무兄弟의 童話는 얼마나 獨逸國民에게 強勇性을 길러주었으며 英國의 國民童話라해도 可할 有名한 彼一惡魔退治의 三代童話는 얼마나 그 民族에게 堅忍性과 保守性을 길러주었는가를 想覺하여보면 攄々히 童話, 傳說의 힘의 偉大함을 다시 覺하게 되는도다. 그러나 兄弟여 우리는 只今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姑捨하고라도 우리의 압해 새로 生長하는 새民族에게 길러줄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달은 곳 아모 것으로도 比하지 못할 高尚한 朝鮮 古來의 童話와 童謠는 이에 留意하는 이 업슴에 어느 듯 모르는 중에 倅쳐 버리고 京鄕의 우리 새 民族은 불으느니 모시모시카메요(モシモシカメヨ)이고 아느니 우라지마타로(ウラジマ太郎), 모모타로(桃太郎)뿐이로다 아아 兄弟여 이것을 이대로 버려둔다면 우리의 明日이 엇지될것 이겠나노

(3) 民族思想의 源泉인 童話文學의 復興을 爲하여 各地에 오래파뭇쳐 있는 朝鮮 古來의 童話를 캐내기에 着手하며 이 큰일을 尼루기에 地方 兄弟의 힘을 빌기 爲하여 懸賞募集이란 形式을 빌어 이에 널리 告하노니 뜻있는 兄弟는 달은 類의 顯賞과 同視치 말고 이 잡 있는 일에 힘을 도오라.<sup>12)</sup>

이상과 같이 방정환의 「조선고래동화모집」 현상 광고를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동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단락(1)에서는 동화에 민족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명시했으며, 단락(2)에서는 동화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조선 고래의 동화가 있음에도 파묻혀 빛이 바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락(3)에서는 ‘민족사상의 원천인 동화 문학의 부흥을 위해 고래 동화를 모 집한다.’는 것을 밝혔다. 「조선고래동화모집」에서는 분명 동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920년대 초반 조선 동화에 대한 발골은 시대적 요청으

12) 懸賞募集, 「朝鮮古來童話募集」, 『開闢』 26. 京城, 開闢社, 1922. 廣告 참조.

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고래동화모집」 현상 공모자이자 『어린이』지의 편집자인 방정환은 그의 소론을 통해 동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는 ‘동화(童話)의 동(童)은 아동이란 동이요, 화(話)는 설화이니, 동화라는 것은 아동의 설화 또는 아동을 위하는 설화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방정환의 동화집인 『사랑의 선물』은 우리 고유의 동화집이 아니었으며, 당시에는 창작동화나 번안동화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을 발간했다. 그렇다면 심의린의 출판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4」

우리가 평생에 뇌 속에 남아 있고 때때로 생각이 나는 것은, 소년 시대에 행하여 오던 일인데, 자미(滋味)가 있던 일이라든지, 무섭던 일이라든지, 혹은 우습던 일, 분하던 일, 슬프던 일, 하고 싶던 일 같은 것은 도무지 잊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어렸을 때에, 어른에게나 동모들에게 자미있게 듣고 율게 여겼던 훈화나 동화 같은 것은 지금까지라도 그대로 귓속에 남아 있고 마음에 머금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정직하고 정신이 총명한 때에는 그 생활에 적합한 사상과 감정을 수양하여, 상식을 풍부하게 하며 문장을 감상하여, 문예의 취미를 얻게 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년 시대에 훈화 동화가 여하한 힘이 있으며, 여하한 영향을 미침은 문지 아니어도 알 것입니다. 줄자가 소년 시대에 얻어 들은 바와 읽어 본 바 중에서 본래부터 우리 조선에 유행되던 동화로, 적당할 듯한 재료 몇 가지를 취택하여 모아서 소년 제군에게 참고에 공코져 차서를 편찬하였습니다.<sup>14)</sup>

13) 小波,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 『開闢』 31. 京城, 開闢社, 1923. 19쪽.

14) 심의린, 『조선동화대집』, 보고사, 2009. 69쪽.

심의린은 ‘본래부터 우리 조선에 유행되던’이라고 한 지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의 것’ 즉 우리 민족 고유의 것에 대한 자각이 분명히 있었다. 이는 당시 출간된 동화집들이 번안·번역 동화집이었음을 감안할 때, 심의린에게는 순수 우리 말과 우리 것에 대한 갈망이 잠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동화 같은 것’이라고 하여 동화 장르에 대한 인식 또한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동화대집』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의 동화집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민족성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조선동화대집』의 형식과 내용적 특징을 조선총독부판 『조선동화집』과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 Ⅲ. 『조선동화대집』의 특징

문학작품은 작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언어예술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및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내용은 인간 및 삶과 관련된 주제의식에서 나오고, 형식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문학교유의 체계와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15)</sup> 그러므로 본장에서 『조선동화대집』이 심의린의 의도에 의해 편찬된 하나의 언어예술품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 책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형식적 특징

『조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은 모두 구전되던 설화들을 텍스트로

15)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문학편, 2007, 401쪽.

한 동화집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설화들은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기점상황(initial situation)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제거되는 충족의 상태로 끝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설화도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여준다. 『조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은 우리나라에 구전되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설화집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실려 있는 이야기 또한 결핍이 제거되는 이야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동화대집』에서는 상승류 중 ‘기만-기만의 성공’의 모티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20편이나 있어 주목을 요한다. ‘기만’과 ‘기만의 성공’은 고난 탈출의 동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sup>16)</sup>으로 일체 강점기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와 재치임을 강조하기 위한 심의린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로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도깨비 돈」, 「이오성」, 「외쪽의 피」, 「두건 쓴 고양이」, 「원숭이 재판」, 「짐꾼의 피」, 「흑 달린 늑은이」, 「오리 먹고 알 먹고」, 「토끼의 지혜」, 「삼인의 학동」, 「염소의 환갑 연회」, 「자리 다툼」, 「천도 얻은 효자」, 「개와 범」, 「떡보의 성공」, 「군수와 어린아이」, 「거짓말 잘하는 아이」, 「여우의 변화」, 「세도재상과 한량」 등이 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편 이야기는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지나가던 유점사의 노승이 구해주지만, 오히려 호랑이는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노승을 잡아먹으려 한다. 이때 토끼가 재치로 노승을 구하고, 호랑이는 다시 함정에 빠진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이다. 노승의 입장에서 보면 토끼가 호랑이를 기만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자신을 구하게 되어 ‘기만-기만의 성공’ 모티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이처럼 우리 설화에서 토끼는 약자이지만 지혜를 지닌 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동화집』에서

16)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134쪽.

의 토끼는 우리의 정서와 다소 이질적인 교활하고 간사한 토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1920년대 문화 정책을 펴고 있던 총독부의 조선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지도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일본 측은 그것이 토끼를 닮았다고 하고, 조선 측은 그것이 호랑이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조선동화집』에서 토끼를 교활하고 간사한 형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술이 싫은 토끼와 거북이와 두꺼비」편 이야기에서는 토끼를 ‘교만한 성품을 타고났다.’라고 하고, 「교활한 토끼」편 이야기에서는 토끼가 호랑이의 두부를 다 빼앗아 먹는 것도 모자라 호랑이의 몸에 불을 붙여 태워 죽이고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식칼까지 빌려오는 것으로 토끼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토끼 이야기로, 토끼로 비유되는 조선을 폄하하여 조선의 문화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설화에 등장하는 토끼는 식욕 본능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며, 지혜롭고 호혜적이면서도 교활하고 악의적이며, 때로는 의외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노출시키기도 하지만<sup>17)</sup> 설화와 동화는 분명 다르다. 동화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자의 시각으로 아동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국민 양성이라는 정책하에 출판된 『조선동화집』의 편찬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일본 측은 그들이 보는 한반도의 지도 형상처럼 토끼를 조선으로 보고, 그러한 조선인을 교활하고 간사한 것으로 표현하여 우리의 민족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런 일본의 의도를 간파한 심의린은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글의 첫 부분에 제시하여 토끼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바로 잡고, 은혜를 모르는

17) 김기호, 「트릭스터 토끼 설화군의 계통-발달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72쪽

호랑이를 비판하려고 했다. 글의 목차가 편집상의 단순한 배열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글의 배열 또한 작가의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의린이 『조선동화집』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그것을 수정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하였다고 한다면, 글의 목차에는 그의 의식이 투영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조선동화집』과 달리 『조선동화대집』에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가 글의 첫 부분에 제시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편저자인 심의린이 가장 먼저 수정되어야 할 조선의 설화라고 보았다는 증거이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토끼에 대한 수정된 이미지 이외에 ‘동화’라는 갈래의 특성상 아동의 환상성을 자극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원시지향적이며 동물담을 좋아한다. 아이들은 동물을 인격화하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깊게 만들어간다. 그만큼 동물들은 아이들다운 상상력을 키워주므로 동화에서 친근한 소재로 사용된다.<sup>18)</sup>

『조선동화대집』에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는 총 36편으로, 호랑이와 토끼를 비롯하여, 망둥이나 가자미, 개구리 등 다양한 동물이 등장한다. 반면, 『조선동화집』에 나오는 동물 이야기는 총 14편으로, 호랑이와 토끼, 개, 여우 등이 있다. 전자에서 등장하는 동물은 그 수도 많지만, 비슷한 종류의 동물들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각각의 이야기 속에 다르게 불리고 있다. 이것은 심의린이 ‘동화’라는 갈래 문학에서 동물이 아동에게 어떤 의미라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것으로 볼 때 그는 ‘동화’라는 갈래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에 실린 이야기들은 과탐의 경계 등과 같은 주제를 강조

18) 최명표, 「동화의 환상성을 드러내는 방식」, 『한국아동문학연구』 제9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01. 268쪽

하기 위해 모방담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금방망이 은방망이』에서 욕심 많은 형은 아우가 큰 부자가 되자, 아우가 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게 된다. 그러나 아우가 나무를 하러간 것은 일상의 한 부분이었지만, 형이 나무를 하러간 것은 아우에 대한 시기심으로 자기도 부자가 되기 위해 아우가 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형의 행동은 ‘권선징악’ ‘선행 필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설화관에 비추어볼 때, 그 결말은 예상이 가능하다.

모방담의 구조는 특정 사건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며, 예상된 결과가 그대로 실현됨으로써 선악의 정지에 대한 응징의 쾌감과 더불어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 심리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들은 비슷한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령 첫 부분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야기의 전개가, 끝 부분에서는 이야기와 관련된 논평이 제시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구성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오래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설화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기도 하다.

심의린은 설화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잘 활용하면서도, 『조선동화집』과 달리 『조선동화대집』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담에서의 배경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나 『조선동화대집』에서는 조선의 구체적인 지명과 함께 그 지역적 특징을 부각하여,<sup>19)</sup> 조선의 것, 우리 것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했다<sup>20)</sup>는 것이 특이하다. 즉 심의린은 설화의 일반적인 구성방식을 잘 활용하면서도 자신의 편찬 목적에 맞게 개작을 하였는데, 이런 점 때문에 일제의 검열을 피해갈

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성의 도깨비 길들이기』에서는 ‘산해관’이라는 명칭과 함께 용도를 제시하여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짐꾼의 피』에서는 ‘경상도 나주와 통영에서 소반이 유명한 곳이다.’ 등과 같이 지역의 특산물을 알려주고 있다.

20) 김경희, 앞의 논문, 229쪽.

수 있었던 것이다.

사건 전개에 있어서도 『조선동화집』과 달리 생동감이 넘치게 표현함으로써 상상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본문은 세로쓰기의 국한문체인데,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고, 한글 작은 글씨로 오른쪽에 덧붙이고 있다. 또한 속담이나 사자성어 등과 같은 우리 말의 다양한 활용은 단순히 어휘력의 증가라는 측면 외에 ‘우물 안 개구리’, ‘위험 한 곳에는 가지 않는다’, ‘진퇴양난’, ‘티끌모아 태산’ ‘식자위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말을 적절히 사용하여 풍자적 기능도 병행하고 있다.

1923년과 24년에 걸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전6권) 교과서의 중간 중간에 들어 있는 삽화들은 일제와 조선의 현실을 일깨워주거나 혹은 식민지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21)</sup> 한 예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삽화로 제시된 도깨비는 일본화된 도깨비로 서구의 악마를 담은 모습으로 어린이의 동심을 자극하는 형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조선동화집』의 『금방망이 은방망이』에서 벌을 받은 형의 모습 또한 서구화된 도깨비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 우리의 정서와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학교 교사였던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서는 지나치게 서구화된 도깨비나 반주인공들의 인물 묘사를 한국적인 소재 등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처리하였고,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이나, 의성어와 의태어 등을 사용하여 아동 스스로 대상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상상력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조선동화집』에서 보여 준 조선 설화의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고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그의 노력의 한 일환으로, 민족적 기질을 지니고 있던 심의린의 편찬 의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21) 서동수, 앞의 논문, 126쪽.



## 2. 내용적 특징

『조선동화대집』에는 교훈적인 내용의 이야기 많다. 특히 교훈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소화(笑話)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전체 이야기 중 교훈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27편이며, 그 외 39편은 웃음을 유발하는 소화에 해당한다. 『조선동화집』에서는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화의 교훈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동화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많이 감소시켰다. 이에 심의린은 소화의 내용을 좀 더 추가하여 동화집으로써의 특징을 부각하고자 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동화대집』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이다. 그렇다면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글의 첫 부분에 배열한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신원기는 『조선동화대집』에 부정적인 호랑이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인간과 호랑이가 대결 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으며, 여기서 인간은 당대 조선인으로 연결할 수 있고, 호랑이는 당대 조선인을 둘러싼 상황과 연결할 수 있다고 했다.<sup>22)</sup>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를 동화집의 제일 첫 부분에 배치했다는 것은 호랑이로 대치되는 일제의 횡포에 대한 풍자가 가장 시급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것은 토끼로 비유되는 조선을 폄하하려는 일제의 의도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앞장에서 이미 확인 한 바 있다. 이 이야기가 일제의 횡포에 대한 풍자라는 것은 「호랑이를 잡은 도적」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제시된다는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호랑이를 잡은 도적」 이야기는 ‘우는 아이 콧감 주기’가 각색된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가 울음을 그친 것이 ‘콧감’이 아니라 ‘콧쥐’라고 되어 있어 특이하다. 또한 본문에서 ‘콧쥐는 콧재우의 와전이다. 콧재우는 임진왜란 때 의병 대장이 되어 활약한 인물이다.’라고 부연설명까지 해 주고

22) 신원기, 앞의 논문, 2008. 263쪽.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의 이름을 들은 ‘호랑이가 도망을 잤다’라고 각색했다. 이것은 어쩌면 호랑이와 곱귀의 관계 다시 말해 호랑이가 일본을 뜻하고 곱재우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 독자로 하여금 임진왜란의 상황을 유추하게 함으로써 호랑이로 비유되는 일본을 도망갔다고 각색한 것은, 어리석은 일본에 대한 풍자를 시도하고자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곱귀의 어원을 살펴보면, ‘곱귀’는 보채는 아이에게 위협을 가하여 달래고자 할 때 쓰는 말이다.<sup>23)</sup> 그런데 심의린은 곱귀를 곱재우의 와전이라고 본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단순히 우는 아이를 달래는 말인 ‘곱귀’에 심의린이 다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편저자로서의 그의 의도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곱재우와 일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에 대한 풍자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앞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으로 조선총독부 편 『조선동화집』에서는 「겹쟁이 호랑이」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겹쟁이 호랑이」에서는 분명 ‘곶감’으로 전하고 있다. 설화가 구비 전승되면서 이름 모를 민중에 의해 개작되었다고 할 때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이 ‘먹는 것’에서 ‘인물’로 바뀌 편찬했다는 것은 일찍이 심의린은 일제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동화를 통해 우의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는 왜 동화집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자 했을까? 前시대의 아동 독서물인 『조선동화집』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를 왜곡하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조선동화집』 소재의 이야기들을 표면적으로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다른 부분들을 윤색·개작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앞에서 살핀 ‘토끼’ 이야기를 들 수 있으며, 『조선동화대집』에서는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를 19편이나 수

23) 친소영, 『한국어와 한국문화』, 우리책, 2005, 225쪽.

록하여 지혜의 상징인 토끼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자 했다.

『조선동화집』에서는 조선의 아동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물로 형상화 하고 있다. 「선녀의 날개옷」편 이야기에서는 ‘효자가 선녀의 옷을 갑자기 가지고 싶어서 가졌다.’고 했으며, 「김은 옥과 붉은 옥」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 못지않게 딸 또한 돈에 욕심이 많은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 「불쌍한 만수」편 이야기에서는 부모를 일찍 여윈 만수가 주인의 노동 착취에 고생하는 모습을 열거하면서 만수를 수동적이고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동화집』에서는 아동을 욕심 많고 수동적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는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에서 아동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모습을 부각시키려 했으며, 이것은 앞서 언급한 ‘기만-기만의 성공’ 모티프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조선동화대집』에는 어리석은 자국민에 대한 풍자도 함께 드러난다. 이것은 『조선동화집』과 달리 바보 이야기가 많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보 이야기가 웃음을 주는 이유는 바보가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서 일반적인 행동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바보 모집」편의 이야기들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당나귀 알」, 「바보 사위」, 「천치 신랑」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바보 이야기에서 바보는 대체로 양반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풍자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한다. 왜 양반을 풍자해야만 했을까? 이것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완고 양반」편 이야기에서 이장천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구시대의 유물인 한문만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 옷장과 벽창을 구분하지 못해 옷을 잃어버리고도 깨우치지 못했고, 과거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글을 써주고 받은 돈을 가지고 오다가 무겁다는 이유로

강가 모래밭에 묻어두고 표를 해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독자들은 이런 어리석은 인물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지만 심의린은 한층 더 나아가 '이전 시대에 한문만 읽고 다른 사물상에 관계하여 보지 못하던 양반들은 대개 이러하다.'라고 논평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새 시대의 새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국민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고 있다.

『인력거 삼등』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보는 신문물인 기차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 독자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웃음을 주는 재료로 사용되었다기보다 독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심의린의 논평처럼 '속내를 모르면 물어보아' 한다는 교훈을 상기하여, 바보와 같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른바 맥락효과를 통한 교육인 것이다. 맥락효과란 어떤 사건을 회상하거나 재인할 때 그 사건이 발생했던 원래 맥락이 많이 제시될수록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이다. 그럼 『조선동화대집』에서의 맥락은 무엇을 말하는가? 심의린은 동화 내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현장성을 드러내는 사실적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단어가 사용된 환경과 독자가 마주칠 경우 더 뚜렷하게 기억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동화 내의 맥락인 것이다. 이런 맥락효과는 독자가 교육받는다느 느낌보다는 스스로 깨닫는 효과가 있다.

서술자의 논평은 동화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적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논평 30편을 분류해 보면, 우리 전통의 정서인 보은, 과욕에 대한 경계, 형제간의 우애, 효 등을 드러내고 있거나 '속내를 모르면 물어라'라는 계몽적인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야기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나 속담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말의 다양한 활용 등의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처럼 『조선동화대집』은 형식적 특성에서 모방담의 구조와, 결핍이 개선되는 유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독자인 아동이 이야기에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어휘의 전달 외에 재미나 흥미

를 유발하기 위해 의성어나 의태어 등을 적절히 사용했으며 인물의 묘사 또한 생동감 있게 서술했다. 내용적 특성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어리석은 일본인과 자국민에 대한 풍자를 드러냈으며, 효, 우애, 지혜 등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내용과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상 구현이라는 계몽적인 내용 등도 적절히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심의린이 ‘동화’라는 갈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편찬 목적에 맞게 적절히 개작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 IV. 『조선동화대집』의 문학사적 위상

Ⅲ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동화대집』에서는 형식과 내용적 측면 모두 심의린의 일제에 대한 저항과 자국민에 대한 풍자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의 민족의식이 발현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좀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192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선동화대집』이 나올 당시는 제2차 교육령 시기<sup>24)</sup>로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6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4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며, 입학 연령은 종래 8살 이상이었던 것을 6살 이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 6세인 조선 아동은 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일본문 교과서를 일본어로 배워야 하며, 정거장에서 차표를 살 때도 조선 지명을 일본어로 불러야 했다.<sup>25)</sup>

특히 입학 아동의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더 어린 아이들마저도 일본어를

24) 일제시대 교육령 시기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1911~1922), 제2차 조선교육령기(1922~1938), 제3차 조선교육령기(1938~1943),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으로 나눈다.

25) 『동아일보』, 1924. 3. 10 (서동수, 앞의 논문, 124쪽. 재인용.)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일본인이 일본어로 『조선동화집』을 만들었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할 때, 어린 아동들에게 『조선동화집』은 왜곡된 조선의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독서물이었고 이는 식민지 국민 양성이라는 일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심의린은 교사로서의 역할 고민과 그 갈등의 결과 우리의 설화를 바로 잡고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조선동화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말로 된 우리의 동화집을 편찬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선동화대집』은 제목 앞에 ‘담화재료’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쪽에도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終’으로 되어 있고, 출간사항을 표시한 뒤쪽 항목에도 책 이름을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이라고 명시했다. 당대 심의린이 저술한 사전에, 담화는 이야기라고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담화재료’는 ‘이야기 재료’인 것이다. 즉 담화재료는 ‘이야기 재료’인데 ‘이야기’보다 ‘재료’에 가중치가 있다.<sup>26)</sup> 재료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야기는 발화의 상황, 즉 맥락에 따라 다른 주제로 사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심의린은 이런 이야기의 특징을 부각시켜 ‘담화재료’라고 명시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에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상정하였다.

보통학교 교사였던 심의린 또한 제도권 내에서의 일제의 감시나 검열 등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조선동화집』에 있는 동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듯하면서, 「바보 모집」과 같은 현실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직시를 깨우치려고 시도했다. 아동들은 「바보 모집」의 바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상이며, 1920년

26) 신원기, 앞의 논문. 2008. 257쪽

대 아동에게 부과된 시대적 과제였다. 이것은 그가 개작한 변안동화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개구리 신선』편 이야기는 『그림동화』의 『개구리 왕자』를 번안한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약속의 중요함’이다. 즉 『개구리 신선』에서 금애는 연못에 빠진 자신의 보석을 되찾기 위해 개구리에게 반지를 찾아오면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개구리의 소원은 금애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개구리는 금애가 자신을 동등하게 대우 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금애는 개구리가 보석을 되찾아오자 개구리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오히려 개구리를 내쫓았다. 서양의 원전에서는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여 결혼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심의린은 끝내 개구리만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금애는 후회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것으로 볼 때 한낱 미물이라도 약속은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구리 신선』에서의 약속은 ‘서로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한 존중’이다. 개구리는 금애가 자신을 한낱 미물로 여기지 않고 자신과 동격으로 여겨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금애의 반지를 찾아 준 것이다. 다시 말해 『개구리 신선』에서의 약속은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곧 평등을 의미한다.

『외쪽의 피』편 이야기에서 주인인 양반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자신만 주막에서 밥을 먹고 외쪽이에게는 술 한잔 먹으란 말이 없었다. 여기에 화가 난 외쪽이가 주인 양반을 괴롭히게 된다. 여기에서도 서로 간의 존중은 없었다. 만약 서로 간의 존중만 있었다면 양반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앞의 두 이야기는 서로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문제를 유발한 것이다. 여기에 심의린은 변안동화 『똑같은 재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똑같은 재주』편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줄테니

재주를 배워오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재주를 시험하여 그것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이는 앞의 다른 이야기들에서 보여주는 장자 상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불평등한 대우가 아닌 능력에 따른 평등사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심의린은 「똑같은 재주」편 이야기를 통해 아동들이 ‘능력에 따른 분배’ ‘불평등이 아닌 동등의 관계’와 같은 근대적 사고를 갖기를 원했다.

「사냥꾼의 소원」편 이야기에서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관련지어 좀 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냥꾼의 소원」편 이야기는 은혜를 입은 사슴이 사냥꾼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동화에서 신격화된 인물은 주인공의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 후 그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나 사슴은 사냥꾼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냥꾼의 마지막 소원은 ‘하인을 달라’는 것으로 집과 세간 다음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설화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심의린은 이것을 깨트렸다. 사슴이 사냥꾼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각색하여 과욕에 대한 경계를 표현했다.

왜 하인을 달라는 것이 과욕의 대상인가? 『조선동화대집』이 출간될 당시는 이미 신분제가 폐지된 상태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소작쟁의나 노동쟁의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냥꾼이 사슴에게 하인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요구사항이었고 아동들 또한 이 부분에서 사슴이 사냥꾼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과도한 욕심의 대상으로 다른 것을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제의 잔재인 하인을 요구하는 「사냥꾼의 소원」이야기는 과욕에 대한 경계를 표면적 주제로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것과 자신이 직접 일을 해야 한다는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



로 이것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한 새로운 인간상임을 그 이면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인은 평등관계가 아닌 종속관계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조선의 식민지 상황을 연상시킨다. 그러므로 심의린은 이런 것을 차단하고 바로 잡기 위해 관습적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소원 들어주기’ 중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개작했다. 여기에서 편저자로서의 심의린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표1>를 통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구 분	표면적 주제	이면적 주제
개구리 신선	약속의 중요	평등 사상
똑같은 재주	형제간의 우애	능력에 따른 분배
사냥꾼의 소원	과탐의 경계	노동의 신성함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의린이 개작한 변안동화에서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평등사상’과 ‘능력에 따른 분배’, ‘노동의 신성함’ 등과 같은 근대적 사고의 지닌 인간상을 드러내어 아동들에게 계몽을 하고 있다.

그는 조선총독부편 『조선동화집』의 동화들이 우리의 설화를 잘못 이해하여 조선인의 기질을 왜곡하고 식민지 국민양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아동을 위한 새로운 동화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직접 한글로 쓰고 한자로 된 부분은 작은 글씨로 토씨 달아 아동이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설화의 일반적인 구조를 잘 살려 구성했다.

민족적 기질을 가지고 있던 심의린은 우리 말과 우리 것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동화의 텍스트 내에 사자성어나 속담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

였으며, 조선의 얼을 살릴 수 있는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도 했다. 또 논평을 통해 근대적 사고와 같은 교육적 측면을 부각 시켰다. 앞의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볼때, 심의린은 전대의 아동 독서물이었던 『조선동화집』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에서 본고는 『조선동화대집』이 1920년대의 전인교육과 계몽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아동 독서물로서의 그 문학사적 위상을 확인하였다.

## V.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동화대집』의 형식과 내용적 특징을 고찰하여, 문학사적 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연구 목적 아래 수행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을 통해 우리말 어휘의 확충에 힘쓰면서, 재미나 흥미를 유발하여 아동의 상상력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저의 의도가 명확했던 것으로 보아, 그가 ‘동화’라는 갈래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조선동화대집』에 실린 동화들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기점 상황(initial situation)에서 시작되어 그것이 제거되는 충족의 종점 상황(final situation)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일제 강점기에서 아동들로 하여금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서는 식민지 상황의 극복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셋째, 심의린은 변안동화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상(人間像)과 평등사상을 고취하려고 하였다.

넷째, 『조선동화대집』에는 바보이야기를 다룬 소화가 많았다. 심의린은 맥락효과를 통해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선인에 대한 교육적 측면

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조선동화대집』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에서 왜곡한 조선의 설화의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함께 민족적 기질을 드러내었다.

본고는 보통학교 교사로 일찍이 남다른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심의린이 조선총독부편 『조선동화집』에서 일제가 우리 고유의 정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바로 잡고 아동들에게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기 위해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고찰했다. 그러나 『조선동화집』의 내용들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 진 바, 본 고에서는 구체적인 비교를 많이 생략하고 있어 논의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후대의 다른 동화집들과 『조선동화대집』과의 연관 관계 등을 고찰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의 동화집과의 전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조선동화대집』의 문학사적 위상을 확고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심의린 저 신원기 역해, 『조선동화대집』, 보고사, 2009.  
조선총독부편 권혁래 역저, 『조선동화집』, 집문당, 2003.  
『開闢』 26. 京城, 開闢社, 1922.  
松村武雄, 『日本童話集』 東京, 世界童話大系刊行會, 1924.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謎』 京城, 大阪屋號書店, 1924.  
中村亮平, 『朝鮮童話集』 東京, 富山房, 1925,  
旗田巍, 『朝鮮史入門』 東京, 太平出版社, 1970.

### 2. 논문

- 권혁래, 『조선총독부편 『조선동화집』(1924) 성격과 의의』, 『동화와번역』 제5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3.  
\_\_\_\_\_,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화사연구』 39집, 민족문화사학회, 2009.  
김경희,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  
김기호, 『트릭스터·토끼 설화군의 계통-발달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서동수, 『아동의 발견과 ‘식민지 국민’의 기획』,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  
小波,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 『開闢』 31. 京城, 開闢社, 1923.  
신원기, 『『조선동화대집』의 내용과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8.  
\_\_\_\_\_, 『반안동화(설화)의 문학교육적 지향성 고찰-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 『조선동화대집』(1926)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2집, 2010.  
조상우,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우언의 유형과 그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39집, 2010.  
조은숙, 『동화라는 개척지 - 방정환의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1923)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0집, 민족어문학회, 2004.

최명표, 『동화의 환상성을 드러내는 방식』, 『한국아동문학연구』 제9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01.

### 3. 단행본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007.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3.

천소영, 『한국어와 한국문화』, 우리책, 2005.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Position of Shim Eui-rin's  
『Choseon Donghwa Daejip(Grand Books of Choseon Fairy Tale)』  
in Literature

Kim, Mi-Young

This thesis analyzed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and forms of 『Choseon Donghwa Daejip(朝鮮童話大集)』 to define the historical position in the literature. The abstract of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r the purpose is as follows.

First, Shim Eui-rin(沈宜麟) contributed to the children's talent of imagination by invoking the interest and curiosity as well as enhancing Korean language vocabulary in the stories of 『Choseon Donghwa Daejip』.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his works to edit the stories, I could assume that he definitely recognized the genre of 'Fairy Tale'.

Second, many of stories in 『Choseon Donghwa Daejip』 showed starting point from initial situation which lacks something in the story and finished at the point of final situation to result the fulfillment by eliminating the lack. The plot of the stories were interpreted as an important measure to escape from the crisis under the Japanese conquer of Choseon(Korea) and overcome the colonial situation to the children.

Third, Shim Eui-rin tried to raise the idea of humanity to respond to the changes of the era and human equality through the Fairy Tale translation.

Fourth, 『Choseon Donghwa Daejip』 listed many short stories about idiot many of stories. Shim Eui-rin must have tried to emphasize the educational aspect of Choseon people who can not accept new culture through context effect.

Fifth, 『Choseon Donghwa Daejip』 tried to recover original features of Choseon tale which had been distorted in Japanese Choseon Colonial Administration edition of 『Choseon Donghwajip(朝鮮童話集)』, which revealed nationalism and resistance to the Japanese emperor.

As a result, this analysis defined the historical position of 『Choseon Donghwa Daejip』 and evaluated as a good readable book for children which shows a humanity · enlightenment by amending the distorted emotion of Choseon people in 『Choseon Donghwajip』.

김미영

소속 : 영남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직장) 053-810-3686 / (휴대전화) 010-4170-7547

전자우편 : myclick76@hanmail.net

<p>이 논문은 2011년 5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게재 확정됨</p>
--